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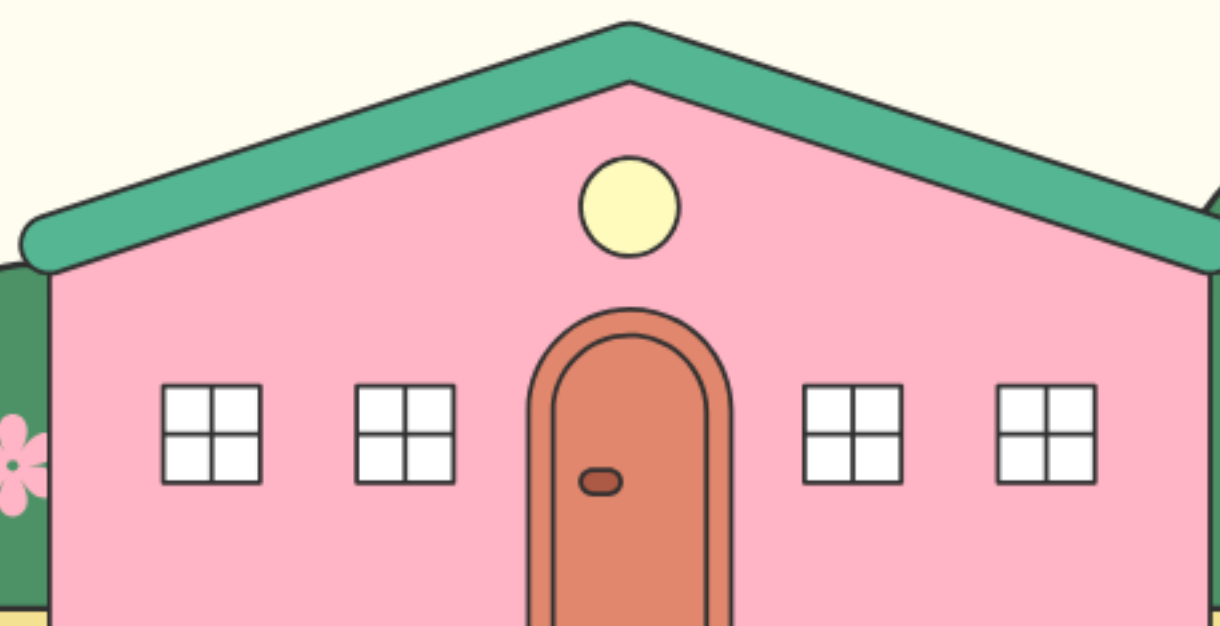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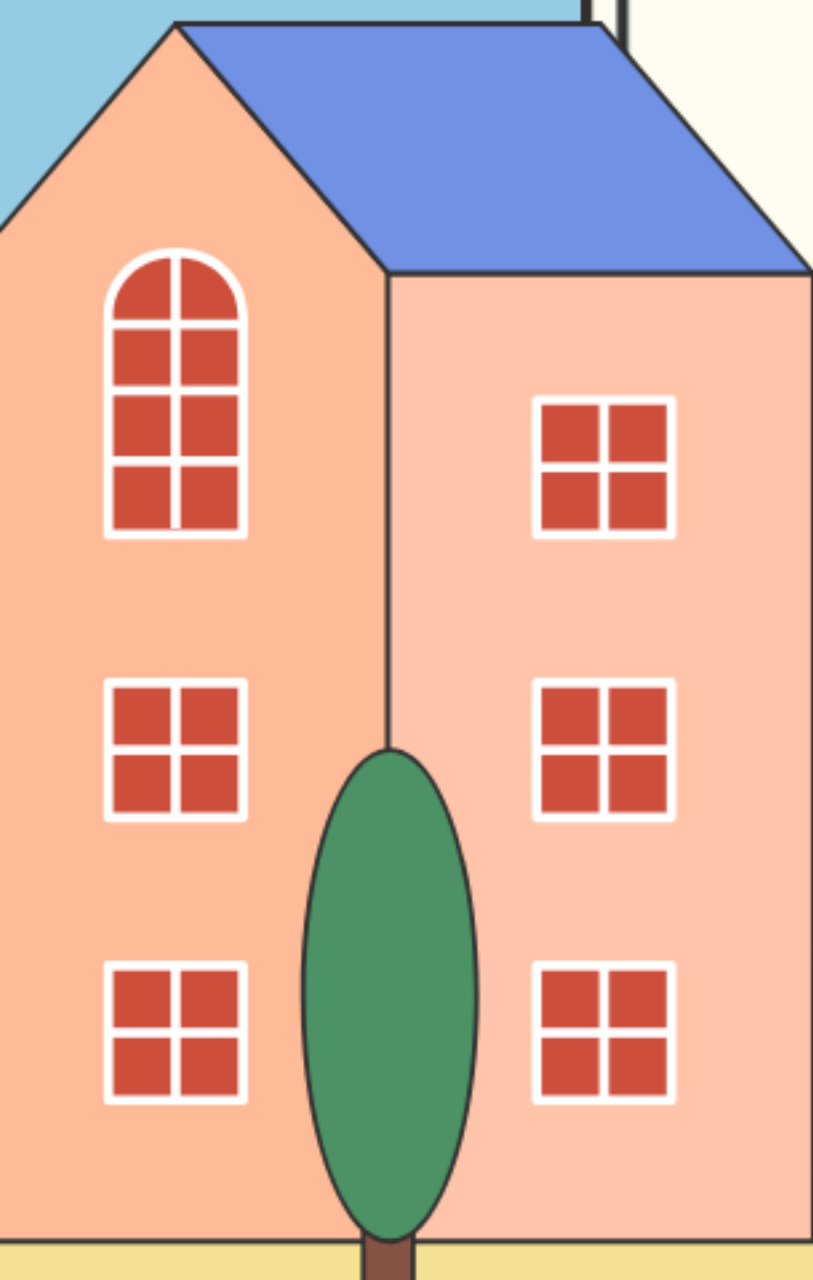


지역사회와
함께 자라는
놀이 이야기
with 청주

삼형제랑 놀자



집 밖으로 나온 놀이
함께 성장하는 우리 동네



우리 동네 놀이 여정



우리 가족 소개
(우리는 삼형제)



자연에서 시작된 놀이
(문암생태공원)



자연을 직접 만나다
(미동산수목원)



책속에서 답을 찾다
(충북교육도서관)



**우리 동네는
가장 큰 놀이터**



놀이가 현실이 되다
(청주시가족센터)



책으로 꿈을 키우다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새로운 놀이의 시작
(도서대여: 소방관, 경찰관)

- 우리 동네의 공간과 사람, 그리고 놀이가 모여 가족의 행복을 키우다

우리 가족 소개

삼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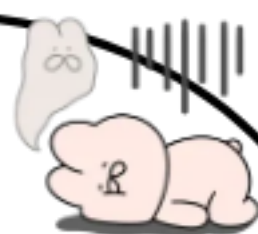


쌍둥이

에너지를
감당하기 힘든
아빠



오늘은 또 저
에너지를 어떻게 빼지



근처에 문암생태공원이 있대
거기라도 가보자



충간 소음 유발
미디어 시청
걱정 가득
엄마

자연에서 시작된 놀이 (문암생태공원)



모래놀이터에서 시작된 상상놀이는
아이들만의 작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넓은 잔디밭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최고
의 놀이터였습니다.

형제는 함께 달리고 공을 차며 몸과 마음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유로운 놀이터였습
니다.



"어 저건 뭐지?"
나무의 곤충집을 발견했습니다
관심을 자연스레 숲속의 곤충들로 옮겨
갔습니다.

자연을 직접 만나다 (미동산 수목원)



공원에서 시작된 놀이는 미동산 수목원에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꽃, 나무열매, 나무, 새, 돌, 물'

아이들은 공원에서 실제로 자연을 만나며 직접 보고 관찰하며 오감으로 느꼈습니다. 자연이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놀이터이자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아빠 저 새 이름은 뭐예요?" "글쎄... 사진을 찍어 두었다가 도서관에 가서 함께 찾아보자"



책속에서 답을 찾다 (충청북도 교육도서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찾은 도서관에는 **유아자료실**이 있었습니다.
유아자료실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이 가득했으며 아직 책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새이를 산비둘기였네." 수목원에서 만난 새, 책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와 자연에 관한 책을 펼치며 아이는 책 속에서 답을 발견했습니다. 직접 보고 느낀 경험이 책 속 지식과 연결되어 놀이가 배움으로 확장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AI 로봇 로미 "날 따라와
곤충책 있는 곳을 알려줄게."



새로운 놀이 시작 (도서관: 소방관, 경찰관)

책에서 시작된 새로운 관심, 직업을 만나다

충북교육도서관은 아이의 작은 호기심이 더 큰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소중한 지역사회 자원이 되었습니다.

곤충 그림책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아이들은 '직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차다"/"소방관이 불을 끄고 있어"/"빼빼빼빼."

책속에서 새로운 직업을 만나며 아이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다양한 직업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직업그림책을 통해 경찰관, 소방관 등 여러 직업을 알아보며
우리 아이들의 세계를 확장시켜주었습니다.

집에 책을 빌려와 하루 종일 읽으며 나만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책으로 꿈을 키운다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에서 읽은 이야기는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역할놀이로 이어졌습니다.

놀이자람터에서는 다양한 놀잇감과 경찰관, 소방관 복장을 입고 서로 역할을 나누며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보았습니다. 책으로 만난 직업은 놀이를 통해 더욱 생생한 경험이 되었고, 아이들은 직업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자연스럽게 키워 나갔습니다.

또한 장난감 대여센터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잇감을 빌려 집에서도 놀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자원은 놀이가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가족이 함께 웃고 소통하는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놀이가 현실이 되다 (청주시가족센터)



청주시 가족센터는

우리 가족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든든한 징검다리였습니다.

가족사랑한마당을 통해 경찰서, 소방서 등 다양한 체험부스
를 운영하며 아이들은 책과 놀이로만 만나던 직업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꿈을 더욱 가까이 느끼
며 실제 경찰관과 소방관을 만나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이 되
었습니다.



소방서



우리 동네는 가장 큰 놀이터

집이라는 작은 공간을 넘어 **동네 곳곳**에서 아이들은 놀이를 만나고 우리는 대화가 많아지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집 안에 머무르던 제한된 놀이가 지역사회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아이들은 안전하게 에너지를 발산하고, 우리는 양육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생활 속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이웃과 함께 배려하며 살아가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미디어에 의존하던 시간은 줄이고 보다 더 큰 즐거움을 경험하며, 아이들은 체험과 배움, 삶을 살아가는 힘을 키워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우리동네

비용은 줄이고 경험은 더하고

**고마워요
우리동네**



가족의 일상이 놀이가 되는 곳, 우리 동네입니다.

